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 체험하는 공간 전통문화홍보관 건립에 즈음하여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온 우리 종단은,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홍보관” 건립 불사를 봉행합니다. 이천만 불자의 소중한 성지이자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조계종 총본산과 문화의 도량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궁궐인 경복궁과 한국미술의 중심지인 인사동,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과 청계천을 연결하는 전통문화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이를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종교의 범주를 넘어 우리의 역사에서 불교는 삶과 문화 그 자체입니다. 이렇듯 체화된 채로 전승해 온 자부심으로 우리 불자들이 “전통문화홍보관”을 건립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선양함과 동시에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대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원이 원만 성취되도록 사부대중이 다함께 정성을 모으고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성심으로 기원합니다. 불사의 인연이 선근공덕을 이루는 복전이기에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불기2557(2013)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